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12/30~2025/01/05]

2025.01.06

[로봇]

- 이번 주의 이슈: 2025년의 로봇
- 삼성의 로봇 사업 의지 재확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고, 미래로봇추진단 신설
-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나, 엔비디아 젯슨 토르 상반기 출시 예정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중
- 중국의 러쉬로봇과 애지봇은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부터 가동

[방산]

- 이번 주의 이슈: 2025년의 방산
- 24년 방산 신규 수주액 95억달러로 목표치 200억 달러 절반만 달성
- 이월된 계약이 많아 25년 수주 금액은 재차 상승세 전환 기대
- 미국의 중국 드론 기술 규제, 중국의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항공]

- 이번 주의 이슈: 2025년의 항공
- 사고 이후, 제주항공 운항 감축과 정비 개선, 노선 배분이 미칠 항공업 영향 확인 필요
- 기업 결합 승인 후 아시아나 이사진 교체 본격화. 사장은 대한항공 여객본부장 내정
- 인천공항 4단계 확장 마무리에 이어서 제 1터미널 개선 사업 개시



Weekly Keyword

2025년의 로봇

삼성의 로봇 사업 의지 재확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사업 관심 확대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재차 높아지는 중. 여전히 기대와 현실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중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a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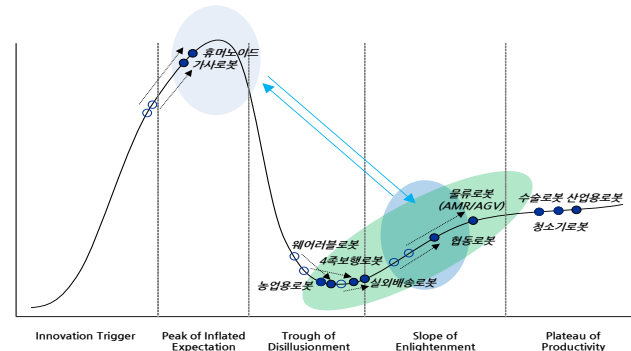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9)

[2025년의 로봇]

-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테슬라 등 주요 휴머노이드 개발사들의 지속적인 로봇 업데이트 공개에 따라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
- 2024년 로봇 기업들의 시총은 40% 이상 감소하며 부진. 23년과는 상반된 실적. 하지만 연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추가 지분 취득,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사업 기대감들이 더해지며 기대감 재차 높아짐. 당장 상용화 가능한 협동 로봇 등 레거시 분야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미래 첨단 자율 로봇임을 재확인
- 중장기적인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은 불변하나, 시장 기대감과 괴리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펀더멘탈 확인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 단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는 HW 측면 (배터리, 컴퓨팅 파워, 동력원 등)에서 한계점이 명확한 만큼, 오히려 로봇 AI를 비롯한 SW 개선에 대한 관심이 유리하다는 판단.

Key Chart: 로봇 산업 하이프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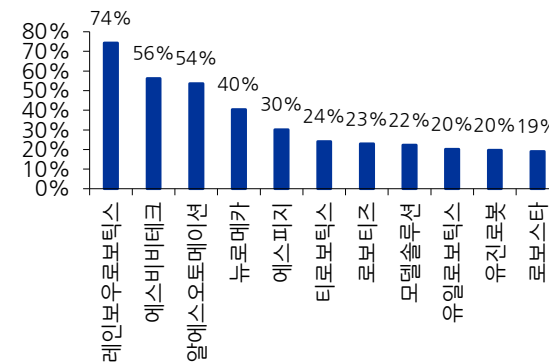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2/30~01/05)

[서비스 로봇]

-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美 업체에 협동로봇 납품 준비 중"

[서비스 로봇]

- 코윈테크, 100억대 자율주행 로봇 양산 공급계약 체결

[기타(정책/부품/SW)]

- 삼성전자, 로봇 개발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 신설. 오준호 박사가 단장으로
- 국내 로봇 산업 매출 규모, 6조원 육박. 전년비 1.5% 증가
- 클로봇, 17.5억원 규모 로봇 자동화 공급계약
- AI 로봇 특허 출원건 수, 지난 10년 간 LG 전자가 1위
- 감속기 기업 이스턴기어, 40억 시리즈A 유치. 100억 밸류
- 서큘러스·만드로, 휴머노이드 로봇 손 공동 개발 협력

[Global]

- 美 지브라테크놀로지스, 비전센서/AI 기업 포토네오 인수
- 美 피규어AI, 휴머노이드 로봇 첫 판매·납품 발생
- 엔비디아, 25년 상반기 로봇용 컴퓨터 젯슨 토르 출시
- 보스턴 다이나믹스·고스트 로보틱스, 특허소송 합의
- 中 대도시 직장인 98%, 가사 로봇 구매 희망
- 中 러취로봇, 휴머노이드 생산라인 가동. 연 200대 규모
- 中 애지봇, 로봇 데이터세트 '애지봇월드' 오픈소스 개방
- 中 린스다이나믹스, 폴사이즈 범용 휴머노이드 공개
- 中, '로봇 1만대 연결' 세계 첫 공용 5G 기지국 개발
- 中 BYD, 로봇 개발 조직 재정비. 미래시험실 설립
- 中 광저우자동차, 3세대 휴머노이드 '고메이트' 공개



Weekly Keyword

2025년의 방산

트럼프 리스크, 계엄 리스크 등 연말부터 계속되는 우려에 주가는 흔들렸지만, 방산 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신규 수주 흐름은 계속되며 주도 섹터의 입지를 이어갈 것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a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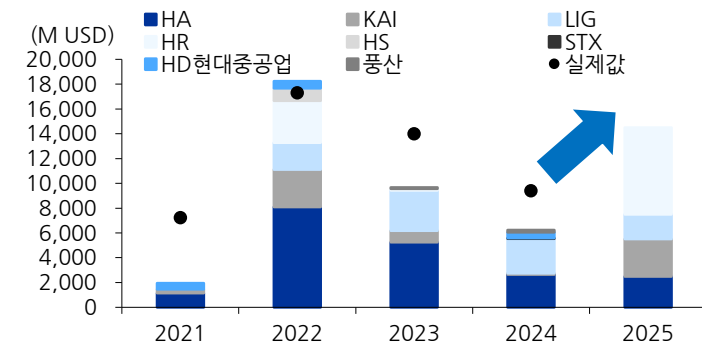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7)

[2025년의 방산]

- 24년 연말 트럼프 당선 & 계엄 리스크로 방산センチメント 크게 악화. 하지만, 방산 실적 성장은 계속되고 수주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전 리스크에도 글로벌 지정학 구도 변함없어, 무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늘어나는 수요 증분이 한국 방산의 몫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 미국/유럽의 방산 보호주의 확대, 일본/터키 등 신흥 경쟁국 대두는 리스크. 기존 한국 방산이 주력 시장으로 봤던 유럽 시장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중점 국가 내 현지 양산 강화하며 추가 후속 발주 이끌어내고, 미국 및 유럽 방산 기업들의 제한된 CAPA 속 흘러나오는 중동 및 아시아, 남미 수요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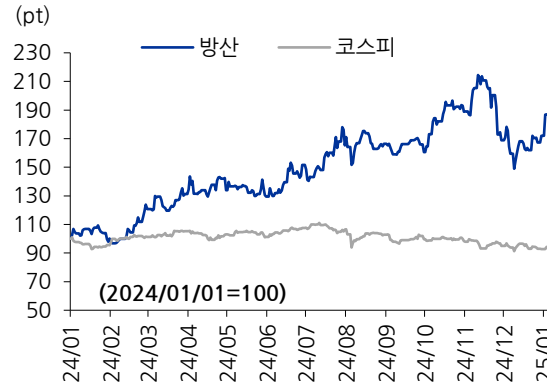
Key Chart: 방산 해외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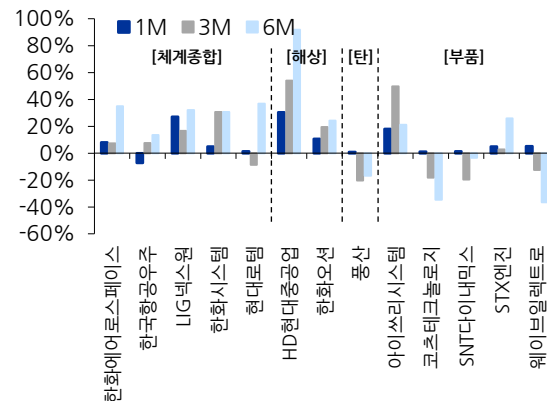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Dart, 유진투자증권

주) 기업별 값은 공시 기준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2/30~01/05)

[수주/계약]

- 폴란드 KGGB 활공유도폭탄 구매 검토 중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인도 K9 자주포 100문 6250억 매출 기대

[기타]

- 24년 방산 수출 95억 달러로 목표치의 절반. 2년째 감소세
- 방사청 이월 수출 계약 95억 달러. 27년 방산 4강 달성 가능
-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희망
- 무역금융 360조 투입. 방산·반도체·車·조선 전방위 지원
- 산자부 국방부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 MOU 체결

[글로벌]

- 미국, "안보 위협" 중국 드론기술 규제 검토
-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3조 7000억 원 추가 군사지원 강행
- 바이든, 이스라엘 8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
- RTX, 루마니아 패트리엇 9.5억달러 규모 계약 체결
- 미 육군 루마니아에서 안두릴/스카이드오 드론 테스트
- 미국, 일본에 중거리공대공미사일(암람) 5,700억엔 판매
- 중국, 보잉 등 미군수기업 28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 일본, 인니에 합정 공동개발 제안 추진
- 대만 총통, 새해 인사에서 국방비 증액 시사
- 튀르키예 방산기업 바이카르, 이탈리아 항공업체 인수



Weekly Keyword

2025년의 항공

사고 여파, 그리고 계속되는 고환율 흐름 속 역풍은 존재하지만, 여객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실적 국면은 계속될 것. 재편 수혜 기대감도 여전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a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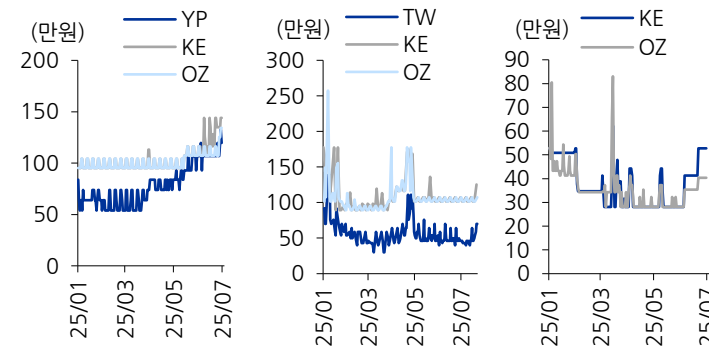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7)

[2025년의 항공]

- 항공업종은 격동기를 지나는 중. 여객 수요는 피크아웃 우려에도 견조했고,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도 마무리되며 업종 재편 본격화
- 2024년 연말 안타까운 무안공항 사고 발생, 그리고 계속되는 고환율 흐름, 항공기 공급 차질은 역풍으로 작용 중이지만, 여객 수요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고, 통합 과정에서 신규 성장 기회 찾을 수 있을 것
- 2025년에도 공급 부족 계속될 전망이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은 불변. 환율 흐름만 개선되면 충분히 주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신규 기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편 수혜 기대되는 기업 중심 접근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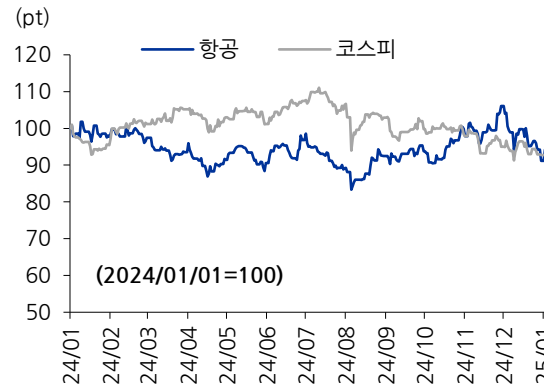
Key Chart: 노선별 티켓가격 집계 결과(최저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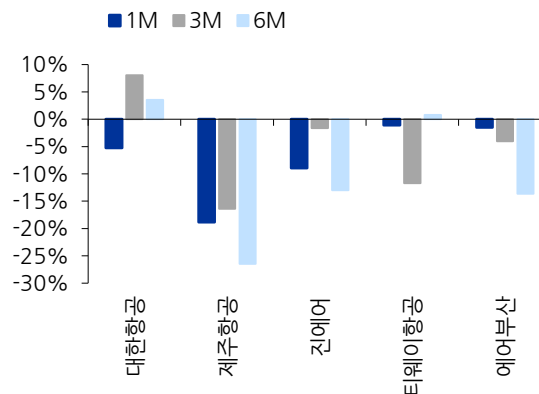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ICN-LAX(로스앤젤레스)/ICN-FCO(로마)/ICN-BKK(방콕) 순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2/30~01/05)

[여객]

- 바티에어,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 취항

[기업별 이슈]

-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 제주항공, 하루 7만건 취소, 예약금 2600억 유출 비상
- 제주항공 가용한 현금 여력 현금 1,400억 확보 공개
- 제주항공, 안전신뢰-노선배분 경쟁력 '모두 하락'
- 제주항공, 항공 정비사 560명으로 확대 추진
- 제주항공 전 노선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전면 개편 나서

[기타]

- KE-OZ 통합에도 산은, 공적자금 회수 안 서두른다
- 아시아나, 수하물 요금 인상 계획 철회
- 국내 공항 15곳 중 11곳 적자. 10곳 추가 건설 추진
- 사고 항공기 동일기종 101대 특별안전점검 실시
-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한 LCC 8년간 2곳
- 사고기종 B737-800 100만 비행당 손실 발생률 0.17%
- 정부, 국적항공사 CEO 소집해 긴급안전대책 회의 개최
- LCC 비행기 71%, 큰 고장땀 해외 위탁. MRO 육성 필요성
- 항공기 부품관세 연장 합의에도 계엄 여파로 면제 중단
- 인천공항 1터미널에 대한 종합 개선사업 추진. 33년 완공
- SK에너지, 국내 정유사 최초 SAF 유럽 수출

[Global]

- 유럽-중국 항공노선, 중국 항공사 점유율 84%로 급증
- 中 C919, EU 인증 마무리 임박. 동남아 10개국 수출 청신호